

東草市誌

2권

Ⅲ. 국가유산

正誤表

2권	Ⅲ. 국가유산
----	---------

9쪽. [표] 내용 수정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종류	내용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강릉 굴산사지,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 등

⇒ 속초 조양동 유적

12쪽, [표] 내용 수정

속초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별 현황

(2023.06. 기준)

구분	명칭	시대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관리자
명승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雪嶽山 飛龍瀑布 溪谷 一圓)	-	신흥사	설악동 산41	'13.03.1 1	속초시
명승	설악산 토왕성 폭포 (雪嶽山 土王城瀑布)	-	신흥사	설악동 산41	'13.03.1 1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 (雪嶽山 울산바위)	-	신흥사	설악동 산40, 고성 군	'13.03.1 1	강원도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 일원 (雪嶽山 飛仙臺와 千佛洞 溪谷 一圓)	-	신흥사	설악동 산41	'13.03.1 1	속초시
	설악산 공룡능선 (雪嶽山 恐龍稜線)	-	신흥사	설악동 산41, 인제 군	'13.03.1 1	강원도

⇒ 좌측 구분항목 합침 ‘명승’ 편집오류

14쪽, [표] 내용 수정

속초시 도지정문화재 지정별 현황

(2023.06. 기준)

구분	명칭	시대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관리자
문화재 자료	속초 신흥사 (束草 神興寺)	삼국~조선	신흥사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84.06.0 2	신흥사
	속초 김근수가옥 (束草 金根洙家屋)	조선	김동국	도문동 1504	'85.01.1 7	김동국
	속초 신흥사 부도군 (束草 神興寺 浮屠群)	조선	신흥사	설악동 산26-3	'91.02.2 5	신흥사
	속초 노학동 삼층석탑 (束草 蘆鶴洞 三層石塔)	고려	국유	노학동 산433	'00.01.2 2	속초시
	속초 매곡오윤환선생 생가 (束草 梅谷吳潤煥先生 生家)	근현대	오수현	도문동 195	'06.07.2 8	오준택
	속초 신흥사 칠성도 (束草 新興寺 七星圖)	근대(1901)	신흥사	설악산로 1137 신흥사 유물전시관 내	'11.08.1 2	신흥사
	속초 신흥사 청동시루 (束草 新興寺 靑銅甌)	조선(1824)	신흥사	설악산로 1137 신흥사 유물전시관 내	'15.11.0 6	신흥사
	속초 보광사 현왕도 (束草 普光寺 現王圖)	조선(1863)	보광사	영랑호반길 69-2 (동명동 579-2)	'18.10.2 6	보광사

⇒ 오준택

24쪽, 아래에서 11째줄, 명칭 수정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라크마박물관을 방문하여 복원작업을 하였고 이 불화를 환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지원을 받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25쪽, 아래에서 3 ~ 7째줄, 주소 및 단어 수정, 년도 추가

조양동 유적은 속초시 조양동 1529·1529-1·1539번지 등에 소재하며 지정면적은 23,135㎡이다.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에서 1991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1992년에 발굴조사가 시행한 결과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어 1992년 10월 10일에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이란 명칭으로 국가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7월 28일에 ‘속초 조양동 유적’으로 변경되었다.

조양동 유적은 기원전 8세기경인 청동기시대 전반기의 유적으로 초반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조양동 유적은 속초시 조양동 1529·1529-1번지에 소재하며 ~ 1992년에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 기원전 8세기경인 청동기시대 전반기의 유적으로 1990년대 초반 택지를 조성하는 ~

28쪽, 위에서 15째줄, 주소 수정

울산바위는 속초시 설악동 산 41번지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걸쳐 있는 설악산의 암봉으로 2013년 3월 11일에 국가 명승 제100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631,090㎡이다.

⇒ 산40번지와

29쪽, 위에서 5째줄, 문장 삭제

1만 2천봉은 화엄경에 범기보살이 금강산에 1만 2천의 보살을 거느린다는 내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 문장 삭제(금강산 기술내용)

30쪽, 위에서 9째줄, 11째줄 주소 및 지명 수정, 아래에서 7째줄 문화재 수정

공룡능선은 속초시 설악동 산 12-21·산41번지와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걸쳐있는 바위산 능선으로 2013년 3월 11일에 국가 명승 제103호로 지정되었는데, 면적은 1,313,080㎡이다.

⇒ 산41번지와

공룡능선은 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 이어진 능선을 말하는데 기상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 무너미고개까지

1965년 11월 5일에 국가 천연보호구역 제171호로 지정되었다.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32쪽, 위에서 8째줄, 정식 명칭으로 수정

해장전은 1788년에 중수되었고 1797년에 단청을 하였으며 1858년에는 구월산 패엽사에서 십육나한상을 옮겨 봉안하고 경관은 대웅전으로 옮기면서 응진전이라 하였다. 현재는 신홍사전시관을 신축하여 보관하고 있다.

⇒ 신홍사 유물전시관을

37쪽, 아래에서 13째줄, 명칭 수정

신흥사 동종은 신흥사 보제루 내에 걸려 있다.

⇒ 신흥사 유물전시관

39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수정

안양암 아미타회상도는 안양암에 소장된 불화이다.

⇒ 불화이나, 현재는 신흥사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40쪽, 위에서 1~5째줄, 단어 수정

신흥사 명부전은 신흥사의 금당인 남쪽에 있는 법당으로 2011년 12월 16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있으므로 지장전(地藏殿)이라고도 하고 저승세계의 심판관인 시왕(十王)을 봉안하고 있으므로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한다. 『신흥사적』에 의하면 1737년(영조 13)에 명부전을 창건하면서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고 1797년(정조 21)에 창오와 거관 스님이 중수하였는데 1858년(철종 9)에 다시 중수하였다.

⇒ ‘주불’ 삭제

신흥사 명부전은 신흥사의 금당인 극락보전 남쪽에 있는 법당으로 ~ 시왕(十王)을 봉안하고 있으므로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한다. 『신흥사사적』에 의하면 ~

41쪽, 아래에서 6째줄, 사찰명 수정 및 띄어쓰기

증명으로 참여한 광명당 등휘는 『금강산화엄사안양암중건기』와 『화엄사안양암중수기』에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적혀있다.

⇒

안양암을 창건하였다고 적혀 있다.

42쪽, 아래에서 6째줄, 용어 일관성 수정

이 시왕도는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함께 한국전쟁 직후 도난당해 미국으로 반출되었다.

⇒ 6·25 한국전쟁

44쪽, 위에서 1째줄, 주소 수정

신흥사는 속초시 설악산로 1147에 소재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이고 1984년 6월 2일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 1137

45쪽, 아래에서 6째줄, 단어 수정

신흥사 일주문을 지나 북쪽 산기슭에 있는 부도군으로 1987년에 시작된 청동통일대불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 있었던

52쪽, 아래에서 13째줄, 단어 추가 문장 수정

보광사 현왕도는 대웅전 내 오른쪽 영단(靈壇) 위에 지장보살좌상과 후벽에 현왕도(現王圖)가 봉안되어

있다.

⇒ 지장보살좌상과 함께 후벽에

54쪽, 위에서 10째줄, 용어 일관성 수정

더구나 속초권역에는 신흥사라는 명찰이 있고 더욱이 한국전쟁 당시에 경관이 불에 타는 비운을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락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 6·25 한국전쟁

55쪽, 위에서 2째줄, 명칭 수정 및 단어 수정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에서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지원으로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 6위가 환수되었다.

⇒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에서 ~ 6위를 환수하였다.

58쪽, 아래에서 16째줄, 명칭 수정

도문메나리는 속초의 전래 농업노동요로서 그 명칭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명칭에서 나왔다.

⇒ 도문농요

74쪽, 위에서 8째줄, 단어 삭제

10년 후인 1991년 속초시의 노력으로 설악제 민속제 때에 가장행렬로 참가하였으며, 단체구성이 안되어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보존회에서 공연하고 김수석 씨는 애원성만을 불렀다. ~

⇒ ‘10년 후인’ 삭제

81쪽, 아래에서 1째줄, 법정 명칭으로 수정

다만, 선사고고유적 중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조양동 선사유적[사적 제376호]과 ~

⇒ 조양동 유적

87쪽, 아래에서 1째줄, 명칭 수정

2015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석기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돌화살촉 1점이 출토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 예맥문화재연구원

91쪽, 아래에서 2째줄, 일자 수정

조양동유적 발굴조사 후 A구릉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취락유적은 고고학적 가치와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1992년 10월 6일자로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이란 명칭으로 국가사적 제 376호로 지정되었다.

⇒ 10일

93쪽, 위에서 10째줄, 아래에서 6째줄, 법정 명칭으로 수정

당시 조사된 1호 고인들의 덮개들은 사적으로 지정된 조양동 선사유적지 내에 이전되어 보존하고 있다.

⇒ 조양동 유적

이 유적은 조양동 산1196-1임 일대로서, 1992년 발굴 조사된 청초호 남쪽 구릉에 위치하는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인 국가사적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400m 떨어져 남-북으로 150m쯤 비교적 길게 뻗은 해발 26~29m의 나지막한 구릉 남쪽 능선부 일대에 해당한다.

⇒ [속초 조양동 유적](#)

111쪽, 위에서 5째줄, 13째줄, 기록물명 수정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신라시대의 불교상을 『[건봉사본말사적](#)』의 『[신흥사적\(神興寺蹟\)](#)』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신흥사사적\(神興寺史蹟\)](#)

인근지역을 살펴보면 고성의 건봉사는 『[건봉사적](#)』에 520년(법흥왕 7)에 아도화상이 원각사로 창건하였고 533년(법흥왕 20)에 보림암과 반야암을 창건하였으며 ~

⇒ [건봉사사적](#)

112쪽, 사진 설명 수정



신흥사 [일주문](#) 조계선풍시원도량설악산문(曹溪禪風始源道場雪嶽山門)

⇒ ‘[일주문](#)’ 삭제

113쪽, 위에서 10째줄, 11째줄, 목록문 1째줄, 기록물명 수정

하지만 『[신흥사적](#)』과 「사적비」의 기록된 자료만을 가지고는 신흥사의 범통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흥사적](#)』에 신흥사에 현재는 전하지 않지만 57인의 고승진영이 소장되었다고 하는데 진영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신흥사적](#)』의 고승진영 목록

⇒ [신흥사사적](#)

114쪽, 아래에서 10째줄, 기록물명 수정

거관벽과는 성곡재현에게 계를 받고 설담태활에게 법을 전수하였다고 하였는데 3명의 승려 진영이 모두 『신흥사적』에 수록되어 있다.

⇒ 『신흥사사적』

117쪽, 위에서 3째줄, 기록물명 수정, 아래에서 2째줄, 단어 삭제

계단의 경우 『신흥사적』에 의하면 1761년(영조 37)에 신흥사 승려인 홍징(弘徵)과 홍운(弘運) 등이 만들었다고 하여 건축한 년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 『신흥사사적』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있으므로 지장전(地藏殿)이라고도 한다.

⇒ ‘주불(主佛)로’ 삭제

118쪽, 사진 설명 수정



명부전과 지장보살삼존상



지장보살삼존상

⇒ 명부전

119쪽, 위에서 5째줄, 18째줄, 기록물명 수정

물론 『신흥사적』이 신흥사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지 못했겠지만 왕실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과중한 국가의 조세 부담으로부터 회피 또는 유람하는 양반계층의 폐해를 줄여 보려는 의도로 이를 애써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신흥사의 경우 이러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 ~

다음은 『신흥사적』과 신흥사에 관련된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 『신흥사사적』

124쪽, 아래에서 3째줄, 6째줄, 기록물명 수정

위의 글을 보면 『신흥사적』에 수록된 많은 문화재가 현재 전하지 않는 원인을 일부나마 추정해 볼 수 있는 글이다. ~

(2) 계조암

계조암은 신흥사의 산내 암자로 『신흥사적』에 의하면 652년(진덕여왕 6)에 자장이 창건하고 1890년(고종 27)에 응화(應化)가 삼성각을 창건하였으며 ~

⇒ 『신흥사사적』

125쪽, 위에서 4째줄, 6째줄, 12째줄, 13째줄, 기록물명 수정

암자 주변에 속칭 흔들바위는 물론이고 ~ 『신흥사적』에 6칸이라 했다. ~

(3) 내원암

내원암은 신흥사의 산내 암자로 『신흥사적』에 의하면 652년(진덕여왕 6)에 자장이 능인암(能仁庵)으로 창건하였고 698년(효소왕 7)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 1760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10칸 규모라 했는데 1800년 후반에 편찬되는 『관동지』에도 10칸이라 했고 『신흥사적』에는 58칸이라 했다.

(4) 안양암

안양암은 신흥사의 산내 암자로 『신흥사적』에 의하면 1785년(정조 9), 신흥사 승려인 ~

⇒ 『신흥사사적』

126쪽, 위에서 2째줄, 아래에서 9째줄, 12째줄, 기록물명 수정

『신흥사적』에 62칸이라 했다. ~

2) 폐사지

속초시에는 설악산이라는 ~ 『신흥사적』에 이름만 전하는 곳은 소개만 하였다.

(1) 향성사지

신흥사의 전신사찰이라고 ~ 『신흥사적』에 의하면 향성사는 652년인 진성여왕 5년에 자장율사가 ~

⇒ 『신흥사사적』

129쪽, 위에서 4째줄, 아래에서 2째줄, 기록물명 수정

그런데 『신흥사적』에는 ‘소림암:문무왕 2년(662)에 창건하였는데 폐사 시기는 알 수 없다’ 라 ~

(4) 사옹사지

『여지도서』에 ‘사옹사: 관아의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 이외에 『신흥사적』에 반야암(般若庵)~

⇒ 『신흥사사적』

130쪽, 아래에서 6째줄, 기록물명 수정

『신흥사적』에 비석류가 소개되었는데 수록 순으로 보면, 사적비 · 용암당비 · 대원당비 · ~

⇒ 『신흥사사적』

131쪽, 위에서 8째줄, 13째줄, 기록물명 수정

『신흥사적』의 목록에는 없지만 고기록조에 ‘월암당탑서(月岩堂塔序)’가 있는데 이는 누가 썼는지는 ~

『신흥사적』에 부도가 소개되었는데 수록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신흥사사적』

135쪽, 아래에서 4째줄, 명칭 수정

구조는 목조 기와이고, 형태는 팔모정이다.

⇒ 육모정

151쪽, 위에서 1째줄, 직책 수정

조양동(산23입) 조양초등학교 옆 아프리움아파트 북쪽 축대와 연결한 구릉 아래에 있다. 구장(區長)을 지낸 이진영(李震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880년(고종 17) 8월에 건립되었다.

⇒ 집강(執綱)

155쪽, 위에서 14째줄, 단어 수정

전면에는 ‘三淵金昌翁先生追念碑’라 새겼고, 후면에는 윤홍렬(尹弘烈)이 짓고 김철홍(金澈洪)이 쓴 추념문과 김창흡의 「현산십삼영(峴山三十詠)」 중 「비선층담(飛僊層潭)」, 「소야팔경(所野八景)」을 새겼다.

⇒ 현산삼십영

158쪽, 위에서 2째줄, 범정 명칭 수정

조양동 부월리 밭 가운데에 있었으나, 택지조성사업으로 현 조양동 선사유적이 위치한 구릉 북쪽 하단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 속초 조양동 유적

189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삭제 수정

계조암은 본래 석굴사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석굴 입구에 목조전실을 짓고 전면에 횡서로 쓴 ‘신통제일나한석굴(神通第一羅漢石窟)’이란 현판을 달았다.

‘관찰사정상우(觀察使鄭尙愚)’ 외 6인의 제명기는 계조암 석굴의 현액 바로 ~

⇒

계조암은 본래 석굴사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관찰사정상우(觀察使鄭尙愚)’ 외 6인의 제명기는 계조암 석굴의 현액 바로 ~

192쪽, 아래에서 2째줄, 인명 수정

호진계 제명기 바로 위에 신상국(沈相國) 외 4명의 제명기가 있는데, 별도 기록이다.

⇒ 심상국

197쪽, 인용문 위에서 11째줄, 년도 수정

■조봉진(曹鳳振, 1777~1738) :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의경(儀卿), 호는 신암(愼菴)이다. 1817년(순조 17)에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 1838

224쪽, 위에서 2째줄, 직계 수정

2005년 매곡 오윤환의 손자 오준택 씨로부터 기증받은 총 139점의 기증유물 중 고서는 총 134건, 355책이다. 그 외 독, 손틀, 궤, 주독 등의 박물류 4건, 매곡선생 영정 1점이 있다.

⇒ 중손자

227쪽, 위에서 17째줄, 기록물 수정

오윤환과 교류했던 이들은 대체로 화서학과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오윤환에게서 글을 배운 손자 오수현(吳秀鉉)과 오윤환의 일기 매곡유고(梅谷遺稿)의 서문을 쓴 어경학(魚敬學)도 화서학파의 학문을 이었다.

⇒ 문집

244쪽, 아래에서 12째줄, 문장 수정

양양부 소천면은 현재 속초시 청호동 일대이다.

⇒ 속초시내 일원이다.

245쪽, 위에서 5째줄, 단어 수정

한양부 소천면(所川面) 속촌리(束村里)에 거주하였으며 추가로 기재된 ‘제6통통수한용의(第六統統首韓用義)’ 라는 부분을 통해 한용의가 통수(統首)였음을 알 수 있다.

⇒ 양양부

250쪽, 3. 시문 출처 수정

3. 영랑호에서 안근재(安謹齋)의 시에 차운하다

가정(稼亭) 이곡(李穀)

안축 재상의 품은 마음 달 속의 누런 학이요	安相情懷黃鶴月
이 몸의 행동은 흰갈매기 일으킨 물결이네	李生行止白鷗波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진정 어려우니	重來此地誠難必
공연히 관동의 노래 한 곡 들어보세	空聽關東一曲歌

『강원일보지(江原日報誌)』

⇒ 『가정집(稼亭集)』 제19권

301쪽, 아래에서 7째줄, 단어 수정

스물,

약산(若山) 박해중(朴海種)

가파른 설악은 칼날의 서슬같이 험한데

雪嶽崢嶸險劍鋒

⇒ 스물

304쪽, [표] 내용 주소 수정

대포만세운동기념관 1 대포동 426

⇒ 428

308쪽, 아래에서 2째줄, 내용 수정

당시 원산으로 가는 기차는 양양역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낙산↔물치↔대포(간이)↔속초↔천진↔문암↔공현진↔간성↔헌내↔초구↔삼일포↔외금강↔장전↔통천↔원산역(중착역)까지 연결되었고 29개의 역사(정차 18개, 간이 9개, 무인역 2개)가 있었으며, 양양에서 하루 4번(05:00, 10:00, 16:00, 21:00) 운행되었다.

⇒ ~ 낙산사 ↔ 대포(간이) ~ 안변역(중착역)까지 ~

309쪽, 아래 사진 수정, 아래 4째줄 문장 수정



동해북부선 속초노선 추정도(정상철 작성)

⇒ 사진수정

동해북부선은 일제강점기 양양의 철광석을 군사기지였던 원산으로 수송하려는 제국주의적 수탈의 목적에서 의해 건설된 철도이다. 또한 경원선(서울 ↔ 원산)과 동해북부선(원산 ↔ 양양)을 통해 서울의 각종 문물과 사상들이 원산을 거쳐 양양지역에 유입되어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현상을 ~

⇒

동해북부선은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등을 군사기지였던 원산으로 수송하려는 제국주의적 수탈의 목적에서 의해 건설된 철도이다. 또한 경원선(서울 ↔ 원산)과 동해북부선(안변 ↔ 양양)을 통해 서울의 ~

310쪽, 위에서 4째줄, 10째줄, 문장 수정

6·25 한국전쟁 동안에는 미군 군수물자 수송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1953년 이후 양양~고성현내 구간이 다시 운영되다가 ~

⇒ 6·25 한국전쟁 때 일부 구간이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1953년 이후 ~

2020년 4월 20일에는 동해북부선 노선 중 끊어진 강릉~제진간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준공식이 열렸는데,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단선 철도로 건설된다.

⇒

2022년 1월 5일 강릉~제진간 일부구간 건설사업 착공식이 고성 제진역에서 열렸는데,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7.9km를 잇는 단선 철도로 ~

319쪽, 위에서 13째줄, 지역 수정

대포만세운동은 중도문 출신 유림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석범(李錫範)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 중도문에 살던

321쪽, 위에서 2째줄, 지명 수정

2013년 상도문1리(도문동) 마을주민들이 학무정 앞 쌍천을 따라 300m가량 동쪽으로 내려간 지점에 현재와 같이 복원하였다. 규모는 지름 10m, 높이 7m이고, 형태는 반구모양이다.

⇒ 상도문1리

322쪽, 위에서 6째줄, 문장 수정

2) 조난자 추모비

대포동 대포초등학교 뒤편(1641-1번지)에 있다. 1930년 당시 대포리 구장(區長)이었던 양재신(梁在信)이 태풍으로 희생된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재(私財)를 들여 건립한 위령비이다.

⇒ 대포동에서 하도문으로 넘어가는 길 옆(대포동 160번지)에

323쪽, 인용문 14째줄, 날짜 수정

[북]

昭和五年七月十八日 소화5년(1930년) 7월 18일

庚午六月二十三日 양력 1930년 7월 18일, 음력 6월 23일

⇒ 경오년 음력 6월 23일(1930년 양력 7월 18일)

325쪽, 위에서 5째줄, 13째줄, 문장 수정 및 주소 수정

1968년 10월에 건립되었다. 비명(碑名)만 보면 설악산의 횡단도로 개통을 기념한 것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설악산 탐방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설악동(산41번지) 옛 비선대 산장 터에 위치한 기념비이다. 1968년 10월에 설악산의 횡단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67년 백담사에서 대청을 거쳐 천불동, 신흥사에 이르는 등산로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지나 오세암을 거쳐 금강굴, 비선대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설하였다. 이결과 내설악과 내설악을 잇는 설악산 횡단로가 1968년 10월에 개통되었다.

5) 충혼탑

도문동(산62번지)에 있다. 1964년 5월 ~

⇒ 1423-1번지

331쪽, 위에서 1째줄, 주소 수정, 비문 인용문 1째줄, 띄어쓰기 수정

10) 제1군단 전적비

조양동(1450-84번지) 속초해수욕장 입구 왼쪽에 있다.

⇒ 1450-94번지

「비문」

6·25전쟁 중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던 제1군단은 1950년 6월 시흥에 서 창설, 1951. 6. 6.~1952. 12.

22.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 884고지, 월비산 전투에서 양양, ~

⇒ 시흥에서

333쪽, 기타 위에서 1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2째줄 문장 수정

4. 기타

1) 속초중앙시장(현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중앙시장은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의 전신이다.

⇒ 속초중앙시장은 현재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다.

2) 영랑시장

1953년 현 영랑동에 해당하는 속초리 1구에 들어선 첫 장터이다.

⇒ 1930년대 현 영랑동에 해당하는 속초리 1구에 들어선 속초의 첫 시장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6월 26일 인가를 받아 3·8일에 시장을 열었다. 인가 당시에는 약 31명이 장사를 하였는데, 속초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면적과 종사원들이 늘어났다.

334쪽, 아래에서 7째줄, 지명 및 단어 수정

청호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아바이마을을 직진해서 지금의 갯배 나루 위치를 건너 중앙동에서 우체국 앞 바닷가 쪽을 지나 원산까지 이어지는 양양-원산간 이등도로였다.

⇒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청호동

335쪽, 위에서 4째줄, 10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2째줄 문장 일부 삭제

이때 소위 조막손 영감(김영학)이라고 불린 이가 주업으로 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당시 갯배의 운영권은 도천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입찰로 차지했다. 학생들의 갯배 요금은 1년에 한 번 가을철에 돈 또는 곡식으로 받았다.

⇒

이전에는 소위 조막손 영감(김영학)이라고 불린 이가 주업으로 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학생들의 갯배 요금은 1년에 한 번 가을철에 돈 또는 곡식으로 받았다. ~

현재의 갯배는 1998년에 4천만원을 들여 35인승 FRP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 갯배의 운항 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현재 속초시민들에게는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유료 이용객 수는 ~ 최근까지 갯배는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였으나 현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 2017년에 1억600만원을 들여 9.5m의 32인승 FRP선으로 ~ 갯배의 운영시간은 오전 5시(5월~10월, 그 외 5시30분)부터 오후 11시(5월~10월, 그 외 10시 30분)까지이며 ~ 현재 갯배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4) 척산온천지구

노학동(939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한에서 가장 북쪽의 온천이다. 척산온천은 조선시대부터 효염이 알려져 있었다.

⇒ ‘노학동(939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한에서 가장 북쪽의 온천지구이다.’ 문장 삭제

338쪽, [표] 출처 오류로 삭제

속초시·고성군(토성면) 망향동산 현황

연번	명칭	위치	현황	관리주체	비고
1	황해도민공원묘지	속초시 금호동 산278	유택 50여기, 묘비	속초지구 황해도민회	황해도
2	평안도민회묘지	속초시 노학동 산27	유택 150여기, 표석	속초지구 평안도민회	평안도
3	함흥시민회 망향동산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6	유택 26기, 망향탑	속초지구 함흥시민회	함경남도
4	원산시민회 향원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유택 130여기,	함경남도	

연번	명칭	위치	현황	관리주체	비고
		산174-1	망향탑	원산시민회	
5	흥남동산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4	유택 115기, 망향비	재속 흥남시민회	
6	고원땅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68	유택 18기, 묘비	속초지구 고원군민회	
7	단천동산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45	유택 129기, 망향비	영북지구 단천군민회	
8	문천군 망향의 동산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유택 69기, 망향탑	영북지구 문천군민회	
9	북청군 양화면 망향탑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망향탑	양화면민회	
10	북청군 신창읍 만촌리 묘역	속초시 장사동(장천)	유택	만촌리민회	
11	신포향원	속초시 장사동 201	향원비	북청군 신포읍민회	
12	영흥군민회 망향동산	속초시 교동 산290	유택 140기, 망향탑	재속초 영흥군민회	
13	이원공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161	유택 163기, 표석	속초지구 이원군민회	
14	망향동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122	유택 32기, 망향탑	함남 정평군민회	
15	망향공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유택 104기, 기념비	속초지구 함주군민회	
16	홍원공원	속초시 조양동 307-1외 2필	유택 61기, 표석	속초지구 홍원군민회	
17	삼호묘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75	유택 71기, 묘비	재속초 삼호면민회	
18	마천원	속초시 노학동 산135	망향비(今廢)	마천령 친목회	
19	길주·명천 망향비	속초시 노학동	망향비(今廢)	길주·명천 친목회	
20	경성군 공원묘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망향비	경성군 친목회	함경북도
21	학성군 공원묘지	속초시 장사동	망향비	학성군 학남면 친목회	
22	고성군민공원묘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83	유택 60기, 표석	속초지구 고성군민회	
23	통천군민회 묘원	속초시 조양동 산375-1	망향탑	통천군민회 영동지회	북강원도

출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총람』, 1991

⇒ ‘출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총람』, 1991’ 삭제

339쪽, 위에서 8째줄, 단어 수정

속초시의 경우 1988년 노학동 소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설악동

343쪽, 아래에서 8째줄, 참고문헌 중복으로 삭제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건봉사본말사적」, 『건봉사본말사적·유점사본말사지』, 아세아문화사, 1977.

_____, 『읍지』강원도편①·②, 이세아문화사, 1986.

_____,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 이세아문화사, 1977.

⇒

‘_____」,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 이세아문화사, 1977.’ 삭제

東草市誌

2권

IV. 민속과 전통

正誤表

353쪽, 아래에서 5째줄 문장 수정, [표] 내용 중 삭제

이상을 종합하면, 속초의 음식문화는 동해안 대표 어항으로 풍부한 해산물음식, 농산(農山)음식, 남한에서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월남 실향민음식, 대표적인 국민관광지로서 발달한 관광음식,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음식문화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속초의 음식문화는 ~ 농산(農山)음식, 피란하여 정착하며 만든 월남 실향민음식, 대표적인 ~

[표] 속초 어촌 어휘와 표준어

알땅구(성계), 쪽발이(불가사리), 행우(우렁쉥이), 말(바다풀), 도박(파래), 써거리(아가미 덩개), 날개미(지느러미), 되미(도미), 노랑태(더덕복어), 메루치(멸치), 뽕쟁이(복어), 눈치(정어리), 싱어·신통이(도치), 새치(임연수어), 다꼬(문어), 까재미(가자미), 감둥이(흑볼락), 불열갱이(황볼락), 조가지(조가비) 등 (※ 괄호 안의 단어가 표준어)

⇒ ‘다꼬(문어)’ 삭제

354쪽, 위에서 3째줄, 단어 수정

강원도 간성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84년에 편찬된 지방지인 『간성읍지』(杆城邑誌)가 간성군의 식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에

355쪽, 13째줄부터 17째줄까지 문장, 시 삭제, 아래에서 10째줄 단어 수정

500여 년 전 조선중기의 문신인 송재 이우는 퇴계 이황에게 논어를 가르친 스승이자 숙부였다. 그는 강원도관찰사와 어사를 지내 강원도를 여러 번 드나들면서 속초에서 게를 맛보고 <식해(食蟹: 속초 게를 먹다)>란 시로서 그 느낌을 남겼다.

초니(초이)의 품미는 예전 일찍이 맛 봤으나 / 십 년 세월 실어 잔 잡으니 빈손으로
살아 왔네 / 관동 길 좋은 객이 없다 할지라도 / 술동이 앞에 놓고 내황공을 대하노니
좋디 좋구려.

여기서 ‘초이(草悞)’는 속초를 말하는 것으로 속초가 수풀, 풀, 갈대, 질흙의 토양이었음을 알려준다. ‘내황공’이란 게의 별칭으로서 소동파의 매부인 황산곡이 즐겨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문장, 시 삭제

1553년(명종 8) 금강산 등 관동지방을 유람한 홍인우은 『관동록』(關東錄)을 남겼다.

⇒ 는

359쪽, 위에서 6째줄, 문장 수정

식해야말로 속초에서는 일상화된 음식이다. 5백 년 전에 우리 고장의 별미로 임금께 진상했던 생선식해, 연어와 전복, 황어와 은어와 홍합으로 다시 전통식해를 복원하는 건 불가능할까? 속초를 전통발효음식 ‘식해의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

⇒ 연어, 전복, 황어, 은어, 홍합 등으로 전통식해를 복원하여 속초가 ‘식해의 고장’으로 굳건해 지기를 바란다.

360쪽, 아래에서 6째줄, 문장 수정

옛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는 방풍홍합젓을 지역의 향토별미로 다시 복원하여, 과거 임금과 황제가 먹었던 진미를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 음식문화 전통의 계승이자 발전이 아닐까?

⇒ 옛 문헌에만 기록된 방풍홍합젓을 지역의 향토별미로 복원하여, 과거 임금과 황제가 먹었던 진미를 현시대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361쪽, 위에서 1째줄 띄어쓰기, 10째줄 단어 수정, 아래에서 11째줄, 단어 수정

1809년 빙허각 이씨가 가정살림에 관해 저술한 조리서인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순채를 생으로 꿀에 재어 두었다가 쓰는 순정과가 기록되어 있다. 만약 지금 설악권에서 복원해야할 옛 음식을 ~

⇒ 조리서인 『규합총서』(閨閣叢書)

사실 야채로서 우리 옛 문헌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기록된 것이 순채다.

⇒ 채소로서

고려시대의 대문호 이규보는 친구 집에서 순채를 먹고 “오늘 순채를 먹으니 / 가늘고 가벼워 은실 같구나” 라며 순채의 맛을 예찬하는 <우인가식순>(友人家食蓴: 친구 집에서 순채를 먹다)라는 시를 지었다.

⇒

<우인가식순>(友人家食蓴: 친구 집에서 순채를 먹다)이라는

362쪽, 위에서 18째줄, 문장 수정

청빈과 소탈의 상징이었던 순채, 안빈낙도의 소박한 삶을 담은 한 그릇의 순채국, 속초의 별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 속초의 별미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366쪽, 아래에서 10째줄, 단어 의미 추가 수정

속초시의 상징 캐릭터 ‘해오미’는 속초의 대표적 특산물인 오징어를 형상화한 것이다.

⇒

:속초시의 상징 캐릭터 ‘해오미’ (2001~2023. 태양, 오징어, 아름다움의 의미를 담은 시민대상 공모 수상작. 속초시 캐릭터로 2001. 09. 07 공식 발표)는 속초의 대표적 ~

368쪽, 위에서 11째줄, 년도 삭제

1937년 12월에는 동해북부선 간성-양양 구간 42.6km가 개통되고, 1941년 속초항 인근에 속초역이 들어섰다.

⇒

1937년 12월에는 동해북부선 간성-양양 구간 42.6km가 개통되고, 속초항 인근에 속초역이 ~

375쪽, 위에서 1째줄, 띄어쓰기

물회는 갯 잡아 올린 생선을 회로 쳐서 파, 마늘, 고춧가루 등으로 매콤하게 갯은양념을 함께하여 찬물

을 부어 먹는 회요리로 속초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다.

⇒ 갓은 양념을

379쪽, 위에서 10째줄, 아래에서 3째줄, 단어 수정

아바이순대는 선지보다는 야채와 곡물을 많이 넣어 만든다는 점에서 ~

아바이순대와는 달리 오징어순대는 선지 대신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간다.

⇒ 채소

383쪽, 제목 단어 수정, 아래 1째줄, 문장 수정

6. 음식문화의 진화

1) 맛강스의 성지, 속초

⇒ 1)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휴양도시, 속초

어느 언론에서는 “속초라는 도시 전체에 미술관 가이드 별 3개를 주고 싶다” 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 이와 함께 동아일보 이형삼 전문기자의 맨 투 맨 속초 맛집 정치학(2017. 7. 19일자)에

384쪽, 위에서 5째줄, 단어 수정

대포항 어민 가족들이 항·포구 어판장이나 어구작업장에 활어통 몇 개를 두고, 갓 잡아온 활어 중에 손님이 직접 고르면 그 자리에서 회를 떠 초고추장과 야채를 함께 내놓아 ~

⇒ 채소

397쪽, 아래에서 13째줄, 단어 수정

여자들의 평상복은 노동에 적합한 저고리에 월남치마나 몸빼 등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격식을 차릴 때는 한복을 입는다.

⇒ 몸빼바지

404쪽, 위에서 8째줄, 단어 수정

초립동이 나들이에는 말이 많다. 초립동 자신도 지금까지 아이의 복장으로 나들이 하다가 관례 후 초립동으로 나가기가 좀 쑥스럽다.

⇒ 초립동이

411쪽, 위에서 5째줄, 6째줄, 12째줄, 14째줄, 아래에서 1째줄, 단어 수정

고무가 등장한 이후, 잠수할 때는 ‘머구리’를 입고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갑바’라는 고무로 만든 옷을 입었다. 겨울철에는 ‘뽕바’라는 털옷을 착용하였다. ~

일제강점기부터 몸빼가 보급된 이후 막일을 할 때나 상인들이 현제에도 자주 입는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은 허리와 바지부리에 고무줄을 넣은 몸빼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주머니가 달린 앞치마를 찬다. ~

하의로는 짧은 통치마나 일제강점기부터 입어온 몸빼 바지를 입어 노동복으로서 활용되었다.

⇒

고무가 등장한 이후, 잠수할 때는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속칭 ‘갑바’라는 고무로 만든 비옷을 입었다. 겨울철에는 일명 ‘뽕바’라는 털옷을 착용하였다. ~

일제강점기부터 **몸빼바지**가 보급된 이후 막일을 할 때나 ~ 바지부리에 고무줄을 넣은 **몸빼바지**를 입고, ~ 하의로는 짧은 통치마나 일제강점기부터 입어온 **몸빼바지**를 입어 노동복으로서 활용되었다.

413쪽, 아래 각주 42) 수정

각주 42) [속초문화원 속초시사\(https://sokcho-culture.com/118\)](https://sokcho-culture.com/118).

⇒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하권 제8편:생활관습, 2005, 1690쪽.

414쪽, 위에서 5째줄, 아래에서 11째줄, 문장 수정

1953년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나일론이 수입되어 겉옷부터 속옷까지 나일론 일색으로 손질이 많이 필요했던 전통 옷감들은 사라지고 질기고 빨아서 바로 입을 수 있는 나일론이 급격히 보급되었다. ~

⇒ **한국에**

삶은 빨래는 반드시 방망이로 두드려 빼는데, **빨래 방망이와 다듬이 방망이 두 종류가 있다. 방망이는 박달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며 요즘도 더러 쓰고 있으나 다듬이 방망이는 사라진지 오래다.**

⇒

삶은 빨래는 반드시 방망이로 두드려 빼는데, **박달나무로 만든 방망이가 가장 좋다고 하며 당시에도 가끔 사용하였다.**

416쪽, 위에서 9째줄, 11째줄, 단어 수정

겨울인데도 눈 속에서 물을 길어 빨래를 맨손으로 하는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몸빼**를 입고 있다. 아이를 업은 여인은 한복을 입고 눈 속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어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끝내고 머리에 이고 돌아가는 여인은 줄무늬 **몸빼**를 입고 있어 당시 **몸빼**를 작업복으로 많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 **몸빼바지**

417쪽, 아래에서 12째줄, 9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7째줄, 6째줄 단어 삭제

실향민 이영길씨에 의하면 옷이라는 것은 한 번도 못 사 입어 봤다고 한다. **옷이 없으니까 광복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서 입고,** 속옷도 못 입고 살았다. 아버지가 사 오신 새까만 고무신은 여자 거라 앞으로 코가 있는데 신으면 커서 못 신고 코가 뒤로 가게 해서 신으면 맞아서 그렇게 한 켤레 얻어 신었다고 한다. 공업용 **미싱**을 하나 중고로 구입해서 만 원을 주고 집사람에게 미싱을 배우라고 하고 **나는** 제빵장사를 해보려고 시작하였다. 천 원짜리 옷을 하나 사면 5년은 입었는데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으니까, 저녁에 빨아서 아침에 입었다고 한다.

⇒

실향민 이영길씨에 의하면 ~ **옷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광복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혔고,** 속옷도 못 입고 살았다. ~ 집사람에게 **미싱(재봉틀)**을 배우라고 하고 **본인은** 제빵장사를 해보려고 시작하였다.

1·4후퇴 때 월남한 주종철씨는 초도에서 유격군 생활을 하었는데 식량은 이북 적지에서 **이제** 소도 끌어오고 쌀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먹고, 옷들도 역시 소를 부산에서 팔아서 ~

⇒ **‘이제’ 삭제**

425쪽, 사진 설명 수정, 위에서 6째줄 인명 수정, 아래에서 6째줄 법정 명칭 수정



심삼옥 부모님의 결혼식(1965)

⇒ 심삼옥

1965년 심삼옥(위드피스 대표)의 부모님이 신홍사 주지스님과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다. 신랑은 양복 정장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에 어깨까지 오는 베일을 두르고 있다. 머리의 큰 꽃장식이 화려하다.

⇒ 심삼옥



조양동 선사유적지 부근의 장례식(1961)

⇒ 속초 조양동 유적

1961년 김유동의 조양동 선사유적지 부근의 장례식 사진은 2011 속초 장릉사진 공모전 가작 작품이다.

⇒ 속초 조양동 유적

429쪽, 사진 및 사진 설명 삭제, 아래에서 2째줄, 문장 수정



빨래

⇒ ‘사진 및 설명’ 삭제

1986년 청호동에서 찍은 사진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손녀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휘날리며, 할머니는 스카프를 쓰고 있다.

⇒

1986년 청호동에서 찍은 할머니와 손녀가 외출하는 사진이다. 손녀의 머리카락이 뻗쳐있고, 할머니는 ~

431쪽, 위에서 7째줄, 아래에서 2째줄, 단어 수정

카라부분이 치마색으로 짙은 여름 교복을 험령하게 입고 바닷물을 들락거리며 ~

⇒ 깃(collar, 칼라 또는 카라)부분이 치마색으로 ~

티셔츠 또는 카라가 달린 티셔츠를 끝까지 다 잠그고 바지와 함께 입고 있다.

⇒ 깃

434쪽, 사진 및 사진설명 삭제, 위에서 1째줄부터 10째줄까지 문장 삭제 수정

[사진]

설악문화제 청호동의 갯배 참여행사

⇒ 삭제

1966년 산신제와 동반행사로 시작된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을 변화발전된 축제로 고대의 제천행사에서 시작되었다.

삼국통일을 기원하는 의지가 부여되어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설악문화제에 청호동은 아바이마을을 주제로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했다.. 큰 밀짚모자를 쓰고 바지저고리나 평상복 위에 조끼를 걸쳐 입는다. 조각 옷감을 덧대어 만든 저고리는 아바이마을의 어려웠던 의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속초의 의생활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 남자는 정장으로 양복과 코트 ~

⇒

‘1966년 산신제와 동반행사로 시작된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을 ~ 아바이마을의 어려웠던 의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삭제

442쪽, 아래에서 3~4째줄, 면적 단위 수정

주거지의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50㎡ 이상의 대형도 확인된다. 초기와 전기에 30㎡ 이상의 중·대형이 많고 중기와 후기에는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 평균 20㎡ 내외이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다양하게 확인되고 정연한 편이다.

⇒ ㎡

444쪽, 위에서 12째줄, 단어 수정

넷돌이나 할석을 방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두른 위석식(圍石式)과 점토를 두른 점토띠식, 돌돌을 두르지 않고 구덩이를 파거나 바닥을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으로 구분된다.

⇒ 돌돌을

464쪽, 위에서 2째줄, 직계 수정

■ 김중우 가옥

이 가옥은 중도문길 74-7(도문동 118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 소유자의 부친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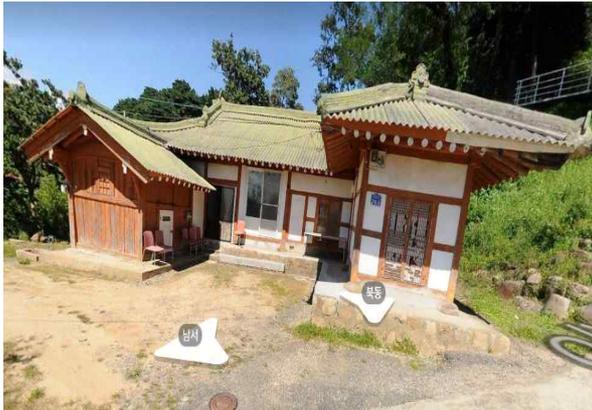
⇒ 조부

465쪽, 위에서 8째줄, 문장 수정

대대로 함평 이씨가 살았으나 30년 전(1997년 기준) 현 소유자가 매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회령댁’, ‘방앗간댁’으로 불리고 있다.

⇒ 1960년대에 현 소유자의 부친이

466쪽, 아래에서 오른쪽 사진 및 사진 설명 삭제



김근우가옥 보수 후

⇒ ‘사진 및 사진설명’ 삭제

467쪽, 위에서 3째줄년대, 위에서 17째줄, 19째줄 주소 및 문장 수정, 아래 2째줄년대 수정
고방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현재의 가옥은 옛집을 헐어 내고 70년 전(1997년 기준)에 신축하였다.
⇒ 1920년대에

□ 박의균가옥

이 가옥은 상도문1길 1(도문동 36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형 겹집으로 팔작기와 지붕 구조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각 기둥을 세우고 방형의 장여 굴도리를 결구하였다. 가옥의 건축연대는 약 180년(1997년 기준)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나, 4년 전 전면적인 보수를 하여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원래 홀처마였으나 부연을 달아 겹처마로 개조하였으며, 전열 두칸의 마루방을 방으로 개조하였고, 뒷방과 안방사이의 벽을 없애고 방을 확장하였다.

⇒

이 가옥은 상도문1길 1(도문동 36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 가옥의 건축연대는 19세기 초에 건립한 것으로 4년 전 전면적인 보수를 하여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원래 홀처마였으나 부연을 달아 겹처마로 개조하였으며, ~

마루방에는 ~ 헛간채는 37년 전에 신축하였으며, 헛간채의 ~

⇒ 1960년대에

472쪽, 아래에서 4째줄, 인명 수정

한편 속초지역에 분포하는 조선후기~말기의 전통가옥인 김종우가옥, 김근우가옥, 오윤환선생 생가, 김근우, 박의균가옥, 김중순가옥 등은 개화기에 이르러 ~

⇒ 김근수

477쪽, 사진 및 사진설명 삭제



1960년대 속초 동명동 해안 어촌 민가(속초시립박물관)

⇒ ‘사진 및 사진설명’ 삭제

490쪽, 위에서 7째줄, 단어 수정

의례는 일정한 생활문화원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약속된 방식이므로 언어와 생활방식이 다르면 의례도 달라질 수 있다.

⇒ 생활문화권

491쪽, 아래에서 9째줄, 단어 수정

태몽에 등장하는 사물을 통해서 성별을 짐치는데, 해와 달, 용이나 호랑이, 붉은색 과일 등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예측한다. 딸의 경우는 과일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동물은 암컷이 나타난다고 한다.

⇒ 과일은

498쪽, 아래에서 1째줄, 단어 수정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발에는 목화는 수혜자를 신었다.

⇒ 발에는

502쪽, 위에서 10째줄, 생년 수정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고복(梟復)’을 하는데 이것을 ‘초혼(招魂)부른다’고 한다. 고인의 속옷이나 윗저고리를 가지고 나가 지붕에 던지면서 “사자님 모시고 아무개 모생 모월 모일 모시에 따라갔으니 잘 가십시오. 복복복” 이라고 한 다음 곡을 하고, ~

⇒ 모년

505쪽, 위에서 8째줄, 단어 수정

회다지가 끝나고 봉분을 다 만든 다음에는 망인에게 잘 모셨다는 평토제를 지낸 다음, 상주들이 혼백을 모시고 돌아온다.

⇒ 봉분을

515쪽, 위에서 11째줄, 단어 수정

날짐승이 먼저 기동하거나 여우 울림소리가 먼저 들리면 흉년이 든다.

⇒ 울음소리가

519쪽, 아래에서 1 ~ 13째줄, 문장 수정

2023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제33회 속초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가 청초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엑스포운동장)에서 열렸다. ~

⇒ 문장 삭제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꾸며졌는데 정월대보름 행사의 일환인 달집태우기는 오후 6시부터 소원성취 햇불마당을 시작으로, 지신밟기,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 달집 불붙이기 및 태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속초사자놀이

속초 달집은 매년 도내 최대 규모(13m×15m)로 제작하였다. 속초도리원농악, 설장구놀이 등 개막공연, 옷놀이,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등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열린다. 행사장에는 무료 가훈 써주기, 부럼깨물기, 소원지 쓰기, 귀밝이술 시음, ~

⇒

속초 달집은 매년 큰 규모로 제작하였으며 속초도리원농악 개막공연, 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의 ~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에서는 행사 전날인 4일 저녁 청호동에서, 5일 오후 1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속초시청에서 각각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 및 지신밟기 행사를 하였다.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하고 속초 사자놀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를 축하하며 정월대보름을 맞이 지신밟기를 하였는데 지신밟기는 자신을 위로하며 집집마다 온 마을을 도는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나라 유일한 세시풍속 놀이다.

⇒

속초사자놀이보존회에서는 행사 전날인 ~ 속초시청에서 각각 속초사자놀이 공연 및 지신밟기 행사를 ~ 속초사자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며 ~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나라 세시풍속 놀이다.

521쪽, 아래에서 11째줄, 단어 수정

등걸(웃저고리)를 해서 입으면 더위를 먹지 않는다.

⇒ 등걸(웃저고리)을

530쪽, 위에서 1째줄, 명칭 수정

매곡 오윤환이 살았던 도문마을에는 메나리농요 전한다. 이 농요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제20호로 지정되었다.

⇒ 도문농요

537쪽, 위에서 9째줄, 10째줄, 단위 및 단어 수정

이것을 관태라고 하는데 관태한 황태 20마리를 ‘한 급’, ‘한쾌’라 부른다. 속초 바닷가에 덕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속초나 주문진 어민들이 가운데는 대관령 땅을 임대하여 덕장을 짓고 겨울철 황태를 만들어 봄이면 걷어가기도 하였다.

⇒

⇒ 이것을 관태라고 하는데 관태한 황태 20마리를 ‘한 켤’ 라 부른다. ~ 속초나 주문진 어민들 가운데는 대관령 땅을 임대하여 ~

544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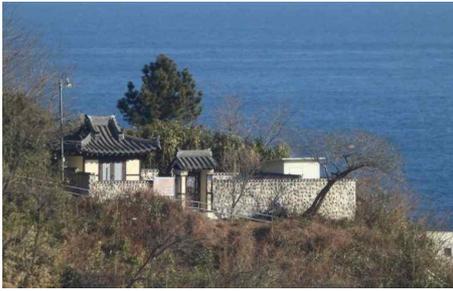


장사동 성황당

546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서낭봉(장천리 성황당이 있던 곳)



동명동 성황당 전경(영랑동의 성황제는 동명동과 매년 공동으로 지냄)

547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동명동 성황당과 내부 모습

548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중앙동 성황당

550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청학동 성황당

552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위에서 14째줄, 문장 수정



노리 성황당과 성황제 모습

9) 척산리 마을신앙

척산의 제당은 당우형이 아니고 신목과 제단의 ~ 주변은 높이 30cm, 둘레 4m 정도의 돌담을 둘러쌓아 놓았다. 마을 제사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지낸다.

⇒

‘마을 제사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지낸다.’ 삭제

553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이목리 제당



청호동 성황당과 내부 모습

554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대포리 성황당

556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성황당 내부 성황신 화상(좌), 수부상 화상(우)

557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위에서 17째줄 명칭 수정



외용치리 장승과 집대

마을의 장승과 집대가 서 있는 곳은 조양동 해안가로 속초시하수도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외용치 마을 입구에 높이 2m 내외, 둘레는 80cm 정도의 크기로 세워져 있다. ~

⇒

대포동 해안가로 속초시하수처리사업소

558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내물치리 성황당

559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장재터 성황당

562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상도문 성황당

563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산신맞이 칠선녀 공연 모습



산신제단



설악산신 위패 봉송



설악산신제

566쪽, 사진 설명 추가 수정



설악동 소나무

575쪽, 위에서 7째줄, 명칭 삭제

*속초도리원농악(21회, 2004), *속초도리원농악(22회, 2007년), *속초도리원농악(23회, 2008년), *속초북청사자놀이(24회, 2011년), *속초북청사자놀이(25회, 2013년), *속초북청사자놀이(26회, 2015년), *속초사자놀이(26회, 2015년), *속초도리원농악(27회, 2017년), *속초도리원농악(28회, 2019년) *속초돈돌라리(29회, 2022년)

⇒ *속초북청사자놀이(26회, 2015년), 삭제(뒤와 중복)

583쪽, 위에서 6째줄, 단어 수정

강원농악의 전승권역으로 불리는 지역은 북쪽의 고성에서부터 강릉, 평창을 비롯하여 남쪽의 **삼척농악** **까지**를 퍼져있는데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편제는 팽과리 3, 날라리 1, 장구 3, 북 2, 징 1, 벽구 8, 무동 8, 질라쟁이 2, 화랭이 1, 기수 1명 등 30여 명이었으며, 가락은 삼채덩덕궁이, 춤사위는 덕거리춤이 주로 쓰였다.

⇒ **삼척농악까지**

624쪽, 위에서 19째줄, 단어 수정

‘울산바위’ 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알 수 없으나 ‘울산’ (蔚山)이란 지명은 ‘펼쳐 **물리** **앞**아 울어서 울산바위’ 라는 구전설화상의 인격적 화법처럼 지명상 명명이 아니라, 한자표기 이전에 형성된 의성적(擬聲的)·형태적(形態的) 명명(命名)으로 판단된다.

⇒ **눌러앞아**

629쪽, 아래에서 12째줄, 단어 수정

너무 오래전의 것은 그만 두시고 여기에 절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천 년동안(설악산에 처음으로 **절간**을 세운 것이 653년인데, 그때에는 향성사라는 **절간**이 있었음)에 이 바위가 놓여있던 십리 들레의 땅에서 거두어들이 곡식을 도로 돌려주셔야 할까 보웁니다” 어린 중의 말에 원은 말문이 막혔다.

⇒

너무 오래전의 것은 그만 두시고 ~ 처음으로 **절을** 세운 것이 ~ 향성사라는 **절이** 있었음)에 ~

647쪽, 인용문 위에서 20째줄, 인명 수정

그러니 그 글을 쓴 사람이 우암이 학자니까 자꾸 고집을 세우다 보면 이런 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기다 써 붙여 놓은 거래요. 그 후에 **유해일**이라는 사람이 송시열이를 아주 숭배해서 송시열이 자고 간 그 집에 서재를 만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 그 집을 유물재(留物齋)라 해요.

⇒ **유희일**

649쪽, 인용문 위에서 11째줄, 띄어쓰기 및 한자 단어 수정

그다음이 청대화병(靑岱畫屏)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옛날에는 주교(舟橋) 지금도 청호동을 건너가는데 배가 있었죠.

⇒ **그 다음**이 청대화병(靑岱畫屏)

685쪽, 인용문 아래 1째줄, 채록자 추가 수정

1) 기원의식요

<고사지내는소리> (지신제)

춘당서를 바라보니 어떤글자 걸렸드나
강구연월 문동요라 일필휘지 선정하니
삼시관이 받아보니 어허 그글 잘지었다
자자야 마다 구절이요 귀마다 관주로다
한림학사 제수받아 금의환향하니 양씨가문의 영화로다

(조양동, 조사일시: 1992. 08. 01.)

⇒

(조양동, 조사일시: 1992. 08. 01., 채록 장정룡)

686쪽, 인용문 채록자 추가 수정

자자-자자, 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 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향이 황금출이오 개문향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리다보니, 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이 다얼었구나
보고 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어나, 자자- 자자

⇒

(조양동, 조사일시: 1992. 08. 01., 채록 장정룡)

696쪽, [표] 내용 수정

속초시 행정구역 변천

시기	행정구역	세부내용		비고
		도문면	소천면	
1416년(조선 태종 16)	양양도호부 설치	- 상도문리 - 하도문리 - 물치리 - 대포리 - 웅진리 - 신흥사	- 논산리 - 부월리 - 속초리 - 속진리	
1914년	도천면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11개 동리: 1925년경)		대포리에 면사무소 설치(도천면사무소) 11개 리 - 속초리 - 부월리 - 논산리 - 노리 - 대포리 - 외옹치리 - 내물치리 - 상도문리 - 중도문리 - 하도문리 - 장항리

⇒ 1916년

697쪽, [표] 내용 수정

속초시 행정구역 변천

1966년	동(洞)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랑동(속초리 1구) - 동명동(속초리 2구) - 중앙동(속초리 3구) - 금호동(속초리 4구) - 청호동(속초리 5구) - 청학동, 교동(속초리 6구) - 조양동(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 - 노학동(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 대포동(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 도문동(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 설악동(장항리) 	1973년 고성군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 장사동 신설
2023년 5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동 13개 - 행정동 8개 - <u>법정동 13개</u> - <u>행정동 8개</u> - <u>법정동 13개</u> - <u>행정동 8개</u> - <u>법정동 13개</u> - <u>행정동 8개</u> 	<p>법정동(13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동 - 동명동 - 금호동 - 청학동 - 노학동 - 대포동 - 설악동 - 영랑동 - 중앙동 - 청호동 - 교동 - 조양동 - 도문동 <hr/> <p>행정동(8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랑동 - 금호동 - 노학동 - 조양동 - 동명동 - 교동 - 청호동 - 대포동

⇒

▶ **법정동 13개**

▶ **행정동 8개** ‘동일내용 중복’ 으로 삭제

703쪽, 아래에서 5째줄, 단어 수정, **각주 4) 논문 교체 수정**

김무림(2000)에서는 속초방언의 위상을 ‘중부방언의 성격과 동해안방언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고 밝혔으며, 이를 복합전이지역(複合轉移地域)이라 칭하였다.

⇒ 김무림(2000)은

4) 최승기, 「속초 청호동의 방언 연구-함경남도 북청출신을 중심으로-」,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3쪽.

⇒

4) 민현식

714쪽, 인용문 위에서 3째줄, 6째줄 명칭 수정,

강원도방언에 대한 것은 한국정신문화원에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 의거하여 강원도 전역을 조사한 것이 가장 체계적이다. 그런데 속초방언은 속초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양양군과 고성군을 조사 지점으로 하였으므로, 『한국방언자료집』(강원도편, [한국정신문화원](#) 1990)에만 의거한다면 속초방언은 양양군의 것과 고성군의 양쪽을 참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시대 도문면, 소천면의 리(里)와 현재 속초 지역 비교〉

조선시대 도문면과 소천면에 속해 있던 리(里)		현재 지역(속초시)	비고
도문면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도문동	도문동의 행정동은 대포동으로 편입(1998년)
도문면	대포리	대포동	
도문면	응진리	외응치	외응치의 행정동은 대포동으로 편입(1998년)
도문면	신흥사	설악동	설악동의 행정동은 대포동으로 편입(1998년)
소천면	논산리 부월리	조양동	
소천면	속초리	청초천을 중심으로 오늘날 시내권	
소천면	속진리	동명동 일부와 영랑동 지역	

출처: 이야기로 만나는 속초(2022)

⇒

조선시대 도문면과 소천면에 속해 있던 리(里)		현재 지역(속초시)	비고
도문면	상도문리	도문동	도문동의 행정동은 대포동으로 편입(1998년)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동	
도문면	대포리	대포동	
도문면	응진리(외응치)	대포동	외응치의 행정동은 대포동으로 편입(1998년)

737쪽, 아래에서 1째줄, 단어 수정

1950년 6월 25일 북의 도발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U.N.군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낙동강까지 밀리던 전세(戰勢)는 단숨에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이른다.

⇒ [UN군이](#)

738쪽, 위에서 1째줄, 단어 수정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확대되어 국군과 [U.N.군이](#) 후퇴를 하게 되자 이들을 따라 북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남으로 피란길에 오르게 된다.

⇒ [UN군이](#)

749쪽, [표] 위에서 15째줄 단어 수정

속초 피란민 방언록

표준어	속초 피란민 방언	비고(의미)
고무래	곰배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는 기구

⇒ 고무래

751쪽, [표] 아래에서 7째줄 단어 수정

속초 피란민 방언록

표준어	속초 피란민 방언	비고(의미)
작은 이면수	세치	-

⇒ 세치

752쪽, [표] 아래에서 7째줄 단어 수정

속초 피란민 방언록

표준어	속초 피란민 방언	비고(의미)
주머니	엽치개, 엽치개	-
주머니	엽차게	-

반영: 주머니 / 엽치개, 엽치개

754쪽,

속초(束草)는 1416년(태종 16)에 설치한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의 12개면 중 ‘도문면과 소천면’ 지역으로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이,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등이 있었다가 속초항 개발로 인해 속초리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6·25 한국전쟁 이후로 함경도를 비롯한 이북 실향민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양양 지역과 행정구역울 달리 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영불필요

민현식(2006), 김무림(2006)은 속초방언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속초방언의 특징>

1. ‘ㅂ, ㅅ’ 보존형이 약세하고 ‘ㄱ보존형’ 은 강하게 남아 있다.
2. 단어나 문장의 고저(높고 낮음) 억양이 심하다.
3. ‘-나?’ 보다 ‘-니?’ 가 우세하다(예, 밥 먹었니?).
4. ‘-니다. -니까?’ 가 ‘-네다, -네까?’ 에 가깝게 들린다.
5. 일부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

반영불필요

766쪽, 구술 채록 장소 수정

사례 2.

※구술에서 나타나는 어휘·방언들은 표준어와 함께 파란색으로 표기하였다. 어휘·방언(표준어)

피면접자 인적 사항	이름	이찬희	성별 및 나이	여 / 1932년생
조사자	조사자1(이유선), 조사자2(오광수)			

구술 채록 장소	노인회관	구술 채록 일자	2023.06.24.
----------	------	----------	-------------

⇒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사무실

777쪽, 위에서 7째줄, 단어 수정

조사자 1: 외정시대 끝나고 저기 소련군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그 소련군들이 여기 속초에도 많이 있었나요?

⇒ 왜정시대

피면접자: 우리는 촌에 있으니까 하나도 못 봤어. 나 못 봤는데 시내 사는 사람은 봤다 그더라고. 우리는 촌에 있으니까 어리니까 하나도 못 봤어.

778쪽, 아래에서 13째줄, 단어 수정

피면접자: 감리교, 천주교 두 개밖에 없었어. 거의 외정 때 생겼어.

⇒ 왜정